

국제정치 속의 한반도 I: 16세기 일본과 중국간의 분할 논의를 중심으로,
1592-1596

이완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I. 머리말

1. 문제의 제기

1592년(선조 25)부터 1598년까지 일본은 2차에 걸쳐 조선을 침략했다. 이러한 임진왜란으로 인해 조선의 국토는 황폐화되고 백성은 도탄에 빠졌으며 정치·경제·문화·사회·사상 등 각 방면에 걸쳐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또한 이 전쟁은 조선·명·일본 3국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던 국제전이였으며 일본이 조선을 대규모로 침략하여 중국과 대결하였던 중요한 전쟁이었다. 임진왜란을 역사적으로 조망한 많은 업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정치사적 조망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당시 일본의 조선에 대한 분할 기도는 한-중-일간의 이해가 얽혀 매우 중요한 논쟁거리가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확인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다. 일본이 과연 어떤 선으로 분할하려 했으며 명이 어떻게 이를 거부했는지 조차 밝혀내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임진왜란의 국제정치는 한-중-일 외교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중심에 강화회담이 있었다. 이 연구는 임진왜란 당시 조선-일본-중국 3국 간의 미묘한 신경전을 보여주는 조선의 분할 논의를 역사적으로 조망하여 사실을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임진왜란 때인 1592년 6월 9일부터 -1596년 9월 2일까지 열린 명나라(조선은 초기에만 참여함)와 일본간의 강화회담이 열렸다. 이 때 한민족을 배제한 채 복수의 강대국간에 한반도 분할이 논의되었는데 이렇게 외국간에 한반도를 둘러싸고 흥정이 이루어진 것은 최초이다. 이 당시 한반도 분할을 둘러싸고 한-중-일 3국은 매우 미묘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 이를 국제정치사적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우선 일본의 割地 제의에 대해 논하고 이에 대한 조선조정의 반대와 명나라 沈惟敬의 수용 등에 대해 언급할 것이다. 또한 명나라 조정의 반대와 이에 따른 명나라 일본간의 강화협상 결렬과정을 연대기적으로 탐구할 예정이다.

본 연구는 임진왜란시 강화회담에서 논의된 조선에 대한 일본의 분할안을 사실적으로 규명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으므로 1 차사료에 의지하여 사실확인을 위주로 하는 역사적 접근법(historical approach)을 채용하고자 한다. 300 년이 지난 과거의 일이지만 이 문제에 관한 사실확인이 아직 미흡한 상태이므로 공간된 문서 등에 의존한 '역사적 고증' 방법과 연대기적 서술(chronological description)-서사적 방법(narrative method)이 가장 설득력 있고 유용한 방법론이라고 생각한다. 선행 연구들도 일정한 수준에 도달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에 공개된 자료까지 포괄하여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을 종합하여 정설을 확립하여 할 필요도 있다. 예를 들어 당시 분할선이 어떤 선이었는지 정확하게 규명되고 있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확실한 사실규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실규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1 차사료에 의지하여 사실확인을 위주로 하는 역사적 접근법(historical approach)을 채용하고자 한다. 과학적 방법의 동원은 우선 사실확인을 한 연후에 별도의 다른 연구에서 시도될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 연구방법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문헌자료 중심으로 찾아내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평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정확히 기술하는 동시에 그 일들 사이의 관계성을 추출해 내는 방법이다. 역사적 접근법은 '사료의 분석과 비판을 통한 실증적 검토'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실증주의적 방법과는 다르다. 실증주의적인 '이론적 분석'(theoretical analysis)의 유용성은 인정할 수 있지만, 철저한 자료수집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균형 있는 해석, 실증적인 분석과 연구를 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작업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과학적 방법의 동원은 역사연구의 초보적 전제인 사실 확인을 한 연후에 별도의 다른 연구에서 시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분할문제를 둘러싼 일본과 중국의 한반도 구상을 구체적이며 세부적으로 복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종이에 문자로 쓰여진 문헌에 의존한 문헌연구이다. 300 여 전의 일이니 만치 인터뷰 기록도 남아 있지 않으므로 문헌사료를 중심으로 문제를 보고자 한다.

오늘 우리의 역사가 과거의 축적이라면 오래 전의 일일지라도 우리에게 교훈을 던져 줄 여지는 있다. 따라서 300 여 년 전의 일이지만 국제정치사적 관점에서 현재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연구의 축적을 통해 한반도 분단상황을 극복하고 다시 겪지 않을 수 있는 교훈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우리의 역사가 과거의 축적이라면 오래 전의 일일지라도 우리에게 교훈을 던져 줄 여지는 있다. 따라서 300 여 년 전의 일이지만 국제정치사적 관점에서 현재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연구의 축적을 통해 한반도 분단상황을 극복하고 다시 겪지 않을 수 있는 교훈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논문이므로 연구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적 관점에서 일본과 중국의 영향력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지 그 해법을 얻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이러한 교훈 발견이 본 연구의 주목적은 아니다. 엄밀하고 가치중립적인 방법을 동원한 사실규명이 주목적이며, 이에 기반하여 교훈을 발견할 수 있다면 본 연구의 활용성이 증대될 수 있다는 말이다.

II. 한반도 분할의 역사적 기원

한반도 분할을 역사적으로 돌이켜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1945년 38선 획정에서부터 시작되어 1953년 휴전선으로 변형된 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한국의 남북 분할을 민족사와 연관해 본다면 그 연원이 매우 깊기 때문이다. 고대 한사군(漢四郡)설치(기원전 109년)나 고려 때 철령과 자비령 이북을 원나라가 직할지로 21년간(1270-1290) 지배한 것에서부터 분할의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위의 예는 외세에 의해 실제로 점유된 경우이며, 단지 안으로 제시되었던 경우로는 7세기 중-후반에 당태종이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키고 溟水 이남은 신라가 다스리며 그 이북은 내가 다스리겠다"고 김춘추에게 제의한 예가 있다.

위의 경우들은 모두 외세와 한민족간 분할지배의 실제와 구상인 경우인데, 한민족을 배제한 채 복수의 강대국간에 한반도 분할이 논의된 최초의 예는 임진왜란 때인 1592-1596년 명나라와 일본간의 강화회담 때이다. 또한 19세기말 20세기초에도 강대국간의 분할 논의가 러시아와 일본간에 있었다.

한반도 분할 논의는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별도 연구테마(모노그래프의 형태)로 심층적으로 연구된 것은 그다지 많지 않다. 20세기 중반에 구체적으로 실행되었던 38선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축적되었지만, 16세기의 분할 논의에 대해서는 실현되지 않아서 그랬는지 그 연구가 활성화되지 못했다. 윤웅상이 1991년 건국대학교 정치학과에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 "임진왜란기 강화 교섭에 관한 연구: 조선 분할안을 중심으로"와 이종만이 1973년에 성균관대학교 정치학과에 제출한 석사학위논문 "조선의 분할안을 圍繞한 열강국의 외교정책 연구" 등 두 편의 석사학위 논문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렇다면 16세기 분할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의미있을 것이다.

III. 강대국 간 한반도 분할안의 전근대적 기원: 일본의 割地요구 - 대동강이나 漢江이나, 1592-1596

16세기말에 명나라와 일본간에 분할이 논의되면서 강대국간의 분할논의가 처음 한반도에 등장했다. 대동강변에서 전선이 형성되었을 때 열린 1592년 8월 29일-9월 1일 평양 강화회담에서 일본의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는 명 심유경(沈惟敬; 장수, 參將)에게 대동강 以東의 땅을 일본에게 귀속시키며 평양 以西는 조선에 귀속시키는 안을 제시했다. 9월 1일 50일간의 휴전은

이루어졌고 심유경은 명황제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北京으로 귀임하였다. 심유경은 황제에게 "天朝가 다행히 진군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도 얼마 있지 않아서 돌아갈 것이다. 대동강으로 경계를 삼아서 평양 서쪽은 모두 조선에 속하게 될 뿐이다"는 고니시의 말을 알렸다. 이 과정에서 고니시와 심유경은 밀약을 맺었다. 그 내용인 즉 평양을 분계하여 남동은 일본의 진영으로 서북은 중국(조선)의 진영으로 하며, 일본(과 중국)의 군사를 전라도에 보내지 않기로 한다는 것이었다. 확실한 분할까지는 아니었지만 이미 군사적 분계선은 실무적이거나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로서 일본의 세력권 확보는 일차적으로는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명 조정에서는 "왜는 믿을 수 없으니 송응창 등으로 進兵하게 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심유경의 대일강화 교섭에 대해 명 조정 내에서도 비판이 심각해져 심유경은 억류되기까지 했다. 대일강화교섭에서 타협적인 태도(주화론)는 후퇴하고 강경책(주전론)이 득세하면서 1592년 12월 25일 명의 제독 李如松이 이끄는 대군의 조선파병이 이루어졌다. 평양에서의 강화교섭은 심유경의 개인적인 견해로 이루어진 성격이 짙으며 대마도 宗씨의 {朝鮮陣記}에 의하면 명나라가 그 대군의 파병 움직임을 숨기면서 비밀리에 기습을 노렸던 일종의 지연작전이기도 했다. 이여송이 심유경의 대동강 以東 할지설에 대해 "심유경(沈惟敬)이 왜노와 강화하고 대동강(大同江) 이동을 일본에 속하게 하려는데 그렇게 되면 국왕을 어디에 둘 것인가"라며 화를 냈다고 한다. 또한 송응창은 "유격(遊擊) 심유경(沈惟敬)이 전에 왜의 진영에 갔을 때 그들은 '평양을 중국에 주지 조선에 주지 않는다'는 등의 말로 큰소리쳤다"면서 "대체로 평양은 본디 조선의 토지인데, 중국이 바야흐로 구원하면서 어찌 다른 나라의 위급함을 틈타 남의 땅을 빼앗겠습니까. 결코 그런 이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조판서 이산보(李山甫)가 심유격의 대동강(大同江) 강화설에 대해 이여송과 자신의 대화를 인용하면서 선조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이여송 제독은 심유경의 일은 믿을 필요가 없다고 전제하면서 자신이 심유격에게 말하기를 "만약 저 왜적들이 모든 조선 지방을 양여(讓與)하고 본국으로 돌아간다면 강화(講和)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혹시라도 조선의 1현(縣), 1보(步)의 땅이라도 점거하고 있으면 강화는 불가하다" 하였는데, "심유경이 재삼 왕복하면서 마침내 대동강(大同江)으로 경계를 삼았고 점차 양보할 것이라 하니, 나는 그의 의사(意思)는 믿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 대목에서 대동강 할지는 대동강 이동을 중국에게 준다는 일종의 명-일간 야합안이며 조선배제안이고, 송응창-이여송의 견해와는 다른 심유경의 독단적인 협상안임을 알 수 있다.

한편 가토(加藤清正)는 1592년 10월 당시 성천에 있던 왕세자 광해군의 分朝(각주 50 참조)에 鏡城관관 李弘業을 통해 일본에서 포로로 잡은 두 왕자 등이 작성한 서신을 보냈다. 이홍업의 말에 의하면 일본 "평조의(平調義)는 '조선이 땅을 떼어 강화(講和)하면 왕자도 되돌려 보내고 군사도 과하겠다'고 하였다"는 것이다. 割地 講和를 하면 두 왕자를 석방하고 철수하겠다는 약속이었다. 갇혀 있는 北兵使 한국함과 南兵使 이영의 서신 중 일본의 가토가

전한 말에 의하면 "귀국의 군현(郡縣)은 거의 일본의 소유가 되었으나 대왕이 다시 이웃나라로서의 맹약을 맺으려 한다면 그중 한두 개 도(道)를 귀국에 돌려줄 것은 물론 전처럼 신의를 지킬 것이다"라는 것이었다. 또한 두 왕자 등의 편지에도 "2~3 도(道)로 경계를 삼아서 국경을 고루 나누고 군사를 파할 것은 물론 양국의 강화를 논하고자 한다"(二三道爲界平分境土罷兵論兩國之禾[和의 오식]也)고 나와 있다. 가토의 편지에 의하면 "다행히 지금 나에게 붙어 항복하면 내가 인차 일본의 關白公(관백이라는 별칭직 벼슬을 가진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를 지칭함, 인용자 첨가)에게 아뢰어 나라의 고을을 나누어주고 父子가 함께 편히 살도록 하겠습니다"(幸今附子降從則已達日本關白公分與於國邑而父子相共須今安在也)라는 것이었다. 항복하면 한두 개 내지는 세 개의 도만 돌려준다는 말이었는데, 당시 조선이 항복을 운위한 정도로 매우 위급한 상황임을 반영한 것이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었을지라도 할지(割地) 자체도 받아들이기 어려운데다가 1-2 개 道라는 범위는 조선이 받아들이기에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의주에 파견했던 선조의 상황을 감안하여 주로 평안도를 염두에 두고 이에 함경도 정도를 첨가한 제안이었을 것이다.

일찍부터 일본은 조선에 직접 분할을 제안했으나 조선이 위기에 처하고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명에 기대면서 강화회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자 주로 명나라와 논의하게 되었다. 조선은 명의 조공국으로써 종주국인 명나라가 조선의 할지(割地)를 허락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에 기대하고 있었다. 선조는 1593년 3월 "일본이 비록 강화하자고 해도 우리의 도리에 있어서는 강화할 수 없다는 뜻으로 말해야 한다"고 강화 반대의 입장을 명백히 했던 것이다. 물론 명나라 조정은 할지(割地)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 상황은 너무 긴박했으므로 전선의 장수들은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

1593년 1월 7일 조명 연합군이 평양을 회복하고 1월 16일 고니시는 한성으로 歸陣했다. 1월 26일 명군은 벽제관에서 일본군에 패배했으나 2월 12일 권율의 조선군이 행주에서 일본군을 패배시켜 밀고 밀리는 접전이 이루어졌다. 식량 보급 등에 문제가 생긴 일본군 내부에서 철수 논의가 일어나기 시작하자 도요토미는 3월 10일 조선주둔 일본군에게 퇴각명령을 전달했고 적극적인 강화 의지를 보이기 시작했다.

한편 1593년 2월 15일 안변에서 이루어진 명 參奉 馮仲纓과 가토오 사이의 회담에서도 조선의 할지(割地) 문제가 논의되었다. 선조는 馮仲纓이 강화에 임하면서 조선의 향도장 최우(崔遇)를 사신으로 데리고 간 사실에 분개하면서 "적추(賊酋; 가토오, 인용자 첨가)는 땅을 나누고[할지(割地)] 인질을 교환하자는 말까지 하였으니 국가의 수치가 배가 되었다"고 말했다. 선조의 입장에서는 할지(割地)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선조는 심지어 조선 사람으로 강화를 논하는 자를 효수하라고 유성용에게 下諭했다.

한성 근처 용산에서 심유경과 고니시는 1593년 3월 15일 다시 만났다. 4월 8일 고니시는 한강이남을 일본 영역으로 할 것을 주장했다. 일본은 서울 이북 반환과 경기도 죽산(지금의 안성시 남동부의 면)-충청도 충주 이남 분할을 교환하려 했으며 결국 4월 8일 質子(인질)의 교환, 충주-죽산 부근에서 두 왕자를 석방할 것, 조공, 죽산-충주 이남의 할지(割地)가 밀약되었다. 명나라 宋應昌이 지은 {經崙復國要編} 卷八, 與李提督書 四月二十一日字 기사와 檄禮曹判書尹根壽 四月二十五日字 기사에 일본이 죽산-충주 등지에서 왕자와 배신을 송출하겠다고 나와 있으므로 명나라 송응창도 이 선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용산에서의 강화회담 후 분위기는 무르익어 5월 1일 강화교섭의 초안은 마련되었으며 명-일 양측은 각각 사신을 파견했다. 조선을 배제하고 명-일간에 절충이 이루어졌다. 명나라는 도요토미의 항복문서를 요구함으로써 1593년 6월 28일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내세운 한강을 경계로 한 明-日 간 분할안 문서가 정식으로 명 사절에 名護屋(지금의 나고야)에서 제출되었다. 일본은 강화 조건 7개조(塙和約款, 소위 大明日本和平相定條 7[件]라 함) 중 제 4 조에서 조선 8도 중 남부 4도를 일본에 할양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조항에는 명확한 경계선이 없으나 "명나라와 八道를 분할하여 한성(國城)과 四道를 조선국왕에게 돌려보낼 것"(對大明割分八道 以四道并國城 可還朝鮮國王)이라고 나와 있다. 4도는 함경, 평안, 황해, 강원으로 추정된다. 나머지 4도인 경기, 충청, 전라, 경상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 지역은 일본이 점유하는 것으로 간주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일본에게 割地하라는 노골적인 요구는 하지 않음으로써 최소한의 예의는 지켰다고 할 수도 있다. 7월 22일 두 왕자는 명나라 사신과 동행하여 소환시켰다. 나머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 5 조에는 "4도를 이미 돌려보냈으므로 조선 왕자-대신 한 두 명을 인질(불모)로 하여 바다를 건너 보내라"(왕자와 대신의 인질)고 나와 있으며 제 6 조에는 조선 왕자 2인을 심유경 편에 돌려보낼 것(두 왕자 放還)이 기술되었다.

그 이외의 각조 요약은 다음과 같다. 제 1 조 '대명황제의 현녀를 일본의 后妃로 맞을 것(대명황녀의 황비책봉),' 제 2 조 '명나라와 일본간의 '公許貿易船(勘合; 조공형식을 띤 합법적 제한무역)이 끊어졌는 바 관선과 상선이 서로 내왕케 할 것(대명과의 우호통상),' 제 3 조 '대명과 일본이 通好에 변경이 있을 수 없다는 뜻으로 양국 전권대신이 서로 서사를 교환할 것(양국대신들의 선서교환),' 제 7 조 '조선 국왕의 權臣이 누세에 걸쳐서 위반치 않을 것을 誓詞로 쓸 것(조선대신의 誓詞捧呈).'

위 7개 조항을 명나라 황제에게 내어놓기에는 너무도 충격적이고 고압적인 것이었으며 중화질서의 맥락에서 보면 허무맹랑하기까지 했다. 일본의 納款使로 명나라로 들어가려는 일행은 1593년 9월 6일 평양에 도착했는데 마침 그 즈음 조선의 사은사가 북경에 있었다. 명의 병부상서 석성은 사은사 정사인 정철(인성부군)에게 조선의 사정을 물은 후 명 신종에게 종용해

도요토미의 降表(항복문서) 없이는 납관사 일행을 북경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요동 수안과 경락에게 지시하게 하였다. '항표 없이는 책봉 없다'는 중국정부의 입장을 정리했던 것이었다. 이에 심유경은 고니시에게 "도요토미의 항표를 가져오지 않으면 봉공을 허락받지 못할 것"을 통고하였다. 그러나 도요토미의 항표를 얻을 수는 없다고 판단한 양인은 12월 21일 항표를 조작하기로 결심하였다. 심유경과 고니시는 결탁하여 도요토미에 대한 책봉과 조공 등을 중심으로 다음 내용이 포함된 항표를 만들었던 것이다.

萬曆 21년 12월 21일 일본 관백인 臣 平秀吉은 誠皇誠恐으로 稽首頓首하옵고 上言請告하옵나니 여기에 天聽을 얻고자 업드려 아뢰옵나이다. 일본은 미약하오나 모두 천조의 적자이오며 유격 심유경이 충고하고 명백히 타일러서 평양에서 시정을 제안하옵고 고니시 등이 이에 감동하여 정한 바 경계선을 넘지 않고 있었던 바 조선에서 반문을 하여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사옵고 비록 아중이 사상하였사오나 마침내 관을 왕경에 묻지도 못하였나이다. 유경이 전약을 다시 말하고 일본제장들이 초심을 바꾸지 않았사오며 성곽을 돌려 보내고 군마의 帛糧을 바쳐서 더욱 지성을 나타내 마음을 모아 농촌에 돌아가 恭順의 뜻을 다하려고 하옵나이다. 이제 一將 小西飛彈守를 보내어서 적심으로 아뢰옵나니 바라옵건대 천조의 龍章과 銀錫을 얻게 되옵는다면 일본으로서는 鎮國의 籠榮이 되겠나이다. 복망하옵나니 陛下께옵서는 日月照臨之光을 여시옵고 天地覆載之量을 넓히시와 舊例에 比照하시어 冊封으로 藩王 名號를 特賜하시옵소서. 臣 秀吉은 知遇之洪休에 感하와 鼎臺를 增重하겠사오며 高深之大造에 答하와 어찌 髮膚를 아끼리오까. 세세로 藩籬之臣이 되옵고 오래토록 海邦之貢을 바쳐서 皇基의 丕蓍하시기를 천년토록 비오며 성수의 綿延하시기를 만세토록 축하옵나이다. 臣 秀吉은 無任瞻天仰聖하옵고 激切屏營之至로소이다.

7 조항의 문서와는 완전히 판판이며 할지 등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라면 7 조항의 가장 중심이었던 조선에 대한 4도 분할안도 당시 명나라 조정에 명확하게 보고되지 않았다. 허위보고인 봉공안은 명나라 조정의 허락을 받았다. 조선의 조정에도 정확한 문서가 아닌 화친(和親)·할지(割地)·구혼(求婚)·봉왕(封王)·준공(準貢)과 망용의(恠龍衣) 및 인신(印信)의 7 조건만이 1593년 11월경에 전해졌다. 도요토미의 7개조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는 도원수 권율이 명나라 劉綎에게서 알아낸 것이었다.

한편 {宣祖實錄}, 卷 40, 癸巳(1593年) 7月 甲子(12일)日條에는 "소문에 들으니 한강을 경계로 서쪽은 명나라에 속하고 동쪽은 일본에 속하게 하면 비로소 화의가 시작된다"(飛語曰以漢江爲界西屬大明東屬日本講和始定)는 구절이 있다. 그렇다면 그 분할의 경계선은 38선에서 멀지 않은 한강이었다. 또한 {明史}, 卷 320, 列傳, 第 208, 外國 1, 朝鮮列傳, 萬曆 21年 7月條 직전에도 1593년 6월 하순경 "왜가 함안-진주 일대를 차례로 침범하고 전라도에 육박하니 한강 이남에 소문이 나기를 王京[서울, 인용자]과 한강으로

경계가 된다고 하였다"(聲復漢江以南 以王京漢江爲界)는 구절이 있다. 또한 유성룡의 {懲毖錄}, 卷 13 辰巳錄 '慶尙道賊勢危急 請速具由 奏聞 天朝狀' (癸巳[1593年]七月)에도 다음과 같이 소문이 비교적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다.

심유경이 왜장과 함께 간 후 도로에서 전하는 말을 들으니 소문이 자자하게 퍼졌다. 어떤 이는 한강을 경계로 남북을 분할한다(或以爲請以漢江分南北) 하니 그 말이 놀라와 입으로 형용할 수도 없었다. 신이 합천에 있을 때 의병장 정인홍이 쇠고기와 술로써 명나라 군사를 먹이고 위로하니 유총병이 인홍에게 말하기를 "왜놈이 심유경과 더불어 함께 가서 한강 이북으로 중국 땅을 만들고 이남으로 왜의 땅을 만들고자 하는데(欲以漢江以北爲中國 以南爲倭地) 명나라 조정에서 어찌 허락하겠는가마는 만일 허락한다면 너의 나라에서는 어찌 할 것인가"라고 하여 인홍이 그 말을 듣고 신에게 전하므로 신은 그제야 도로에서 전하는 말이 또한 유래한 데가 있음을 알고 몹시 놀랍고 마음 아픔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이 시점에 조선 조정에서는 도요토미의 4도 割地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않았고, 한강이남 割地라는 막연한 풍문에 의지한 논의만을 알고 있었다. 화의가 무르익을 시점에서의 공격이었으므로 그 이유에 대해 설왕설래가 이루어졌는데 경상-전라도 양도에서 조선의 관헌-의병의 저항을 극복하고 실질적인 割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음이 사후에 판명되었다.

전선의 남하에 따라 일본은 제안 당시의 進駐 지역인 대동강에서, 죽산-충주, 한강으로 분할선을 이동시켜 제안했던 것이다. 따라서 조선 침략 이전에 이미 구체적인 분할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또한 고니시의 죽산-충주선과 도요토미의 한강선(4도 割地)이 다소 다르다는 것에서 분할선의 결정 및 제안과정에 혼선이 있음을 알 수 있다.

1594년 2월 초에 조선 조정에서 割地 논의가 빈발했다. 먼저 {宣祖實錄}, 卷 48, 甲午(1594年) 2月 辛亥(2일)日條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접대도감 이덕형이 임금에게 아뢰기를

"신 이덕형이 척총병을 만나보니 총병이 문서 한 통을 내놓았는데, 石尙書-宋經略과 왕복한 문서였습니다. 대강의 요점은 송응창이 척총병에게 전적으로 위임하여 강화하는 모든 일을 맡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심유경이 4도를 할양하기로 허락했다는 말은 譚宗仁의 가인에게서 들었는데, 그 뜻은 오로지 저희들끼리 서로 시기하는데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척총병이 경략에게 보낸 稟帖에도 '八呬에서 심유경이 이런 주장을 한 것을 들었는데 거짓인지 참인지를 모르겠다'하였습니다....."

처음 심유경의 밀약설이 논의될 때 반신반의하는 것이 역력했으며, 割地에 대한 심유경과 다른 대신들간의 의견대립에 대해 언급하여, 이 문제를 둘러싸고

권력투쟁이 시작될 수 있음을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었다. 조선의 조정은 처음부터 명나라 사람들간에 이견이 있음을 파악하여 그것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었으며 중주권을 가진 '명나라 황제가 조공국인 우리를 분할하는데 일본과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래도 4도 割地說을 확실히 인지했고 그 실현가능성에 대해 의식하고 있었으며 역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宣祖實錄}, 卷 48, 甲午(1594年) 2月 癸丑(4일)日條에도 조선 조정에서 행한 割地(분할)에 대한 문답에도 심유경의 밀약설이 이어졌다.

"戚金(척장, 명나라 副總兵으로 당시 구원차 조선에 와 있었음, 인용자 첨가)은 심유경(沈惟敬)의 땅을 떼어준다(割地)는 말에 대해 심히 상스럽지 못하다고 말했다. 당초 왜적이 서울에서 물러가자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였는데, 지금 보니 땅을 떼어 준다는 약속 때문에 물러간 것 같다"고 선조가 말했다.

이에 유성룡이 아뢰기를,

"평양에 있을 때 들으니 심유경이 왜적과 약속하기를, '대동강(大同江) 이하는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하였다는데, 경성에서도 필시 이런 식으로 말했을 것입니다. 적은 영리한 사람이라서 처음에는 송(宋; 송응창, 인용자 첨가)에게 붙었다가 지금은 고시랑(顧侍郎)에게 붙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하고, 심충겸이 아뢰기를,

"척금(戚金)의 말은 차마 말할 수 없는 것까지 있습니다. 심유경이 왜적에게 4도(四道)를 할양하기로 허락하자, 왜적이 '아무 표지도 없는데 어떻게 땅을 떼어 주었다고 할 수 있는가? 반드시 표지를 정한 다음에야 된다'라고 하니, 심유경은 '천장(天將)이 이미 허락하였으니 너희는 그 땅에 갈고 심을 수 있다'고 하였다 합니다."

선조는 심유경이 割地를 밀약해서 왜적이 물러간 것은 아닌지 불안해했는데, 대동강선과 4도 분할설이 심유경의 밀약과 관련되어 비교적 정확하게 열거되고 있다.

또한 {宣祖實錄}, 卷 48, 甲午(1594年) 2月 乙卯(6일)日條에 의하면 조선의 접반사(接伴使) 김찬(金瓚)이 왜의 강화 교섭 과정을 선조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정월 25일에 총병(總兵)이 통사(通事) 이희인(李希仁)·유의빈(柳依攬)을 부르더니 좌우에 있는 사람을 물리치고 나서 비밀리에 말하기를, '담종인(譚宗仁)은 왜적의 진영에 억류되어 있고, 심 유격(沈遊擊; 심유경, 인용자 첨가)이 근일 표문(表文)을 가지고 왔는데 천조(天朝)와 그대 나라의 일은 모두 심(沈)이 망쳤다. 표문은 관백의 글이 아니라 고니시

유끼나가(小西行長) 자신이 지은 거짓 표문이다. 관백은 행장으로 하여금 화친과 그대의 나라를 공벌(攻伐)하는 일을 전담하여 주관하게 했는데, 심이 행장과 한마음이 되어 행장에게 이르기를 '중국군은 모두 철수하고 다만 유총병(劉總兵)의 군사 5 천 명만이 주둔하고 있다'하니, 유끼나가가 듣고 크게 웃었다. 관백이 하고자 하는 바는 두 가지 일이다. 첫째는 천조(天朝)와 혼인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한강(漢江) 이남의 땅을 할양(割讓)받는 일이다. 심유경이 말하기를 '땅을 할양하는 일은 석야(石叡; 병부상서[지금의 국방부장관] 석성, 인용자 첨가)가 이미 허락하였으니 너희의 봉공(封貢)을 운허받은 다음에는 임의대로 하라' 하였다.

고니시가 도요토미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심유경과 결탁하여 밀약했으나 그것이 그렇게 순탄치 않을 것이 예견되어 있다. 따라서 조선의 조정은 심유경에 대해 비판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명나라 심유경은 일본에 대동강 이남, 죽산-충주 이남, 한강 이남, 4 도 등의 할지(割地)까지 약속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일본의 조선에 대한 영토적 욕심을 효과적으로 견제하지 못했으며, 이러한 밀약은 강화사절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었고 더 나아가서 명나라 조정의 방침과 부합되는 것도 아니었다.

한편 의승장 사명당 유정은 1594 년 4 월 13 일부터 12 월 23 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가토(加藤清正)와의 회동하여 강화 회담을 했는데 가토의 요구 또한 도요토미의 7 개 조건과 대동소이한 내용의 다섯 가지로 이루어졌으며 두 번째 조건이 '조선 四道를 일본에 할양할 것'이었다. 5 개조 요구의 실현 가능성과 고니시-심유경의 강화교섭의 성공여부에 대해 가토는 유정에게 1594 년 4 월 14 일 질문했는데 사명대사는 "四海地內는 모두 천자(신종)의 것인데 어찌 심유경 일인이 천자로 하여금 마음대로 奪與를 시킬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고니시와 심유경의 할지(割地) 강화 방안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 대목에서도 할지(割地) 밀약은 심유경의 독단적인 행동임을 알 수 있으며 조선이 의지하고 싶어하는 논리는 역시 '명 황제는 속국의 땅을 떼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또한 서생포에서 1595 년 3 월 2 일 명의 章應龍-愼懋龍 양 도사(都司) 등과 만난 자리에서도 가토는 비슷한 5 개조를 제시하면서 조선의 4 개 도(道)를 일본에 부속시키는 것을 역시 2 번째 조항으로 하였다. 가토는 "명나라가 조선을 일본에 부속시킬 수 없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조선왕조실록}에 실려있는 5 개 조는 다음과 같다. 첫째 大明과 일본은 혼인을 할 것, 둘째 조선의 4 개 도를 일본에 부속시킬 것(朝鮮四箇道屬于日本), 셋째 조선왕자[1 인]를 일본에 볼모로 보낼 것, 넷째 조선의 大官老人을 일본에 볼모로 보낼 것, 다섯째 조선의 大官家老는 화의를 함께 서약할 것. 이러한 5 개 조는 도요토미의 뜻을 거의 반영하고 있는 안이었다. 선조는 카토를 만났던 章-愼 두 都司를 1595 년 3 월 26 일 접견했는데 두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적정을 보니 고니시가 비록 물러가더라도 카토는 반드시 움직일 것입니다. 또한 카토는 '表文은 모두 고니시가 보낸 것으로 관백이 아는 바가 아니다. 만약 표문의 허실을 알고 싶으면 전에 보낸 표문을 가지고 와서 당신들과 함께 관백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 확인하여 보면 허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카토의 본의는 그가 '만약 4 개 도를 분할해 주면 일본으로 향할 생각이고 대명으로 향할 뜻은 역시 없다'(則以爲若割給四道 則欲向日本之意 亦無向大明之意云)고 한 것입니다..... 카토와 고니시는 본디 서로 사이가 나빴는데 이제 만약 고니시가 봉함을 받고 먼저 돌아간다면, 카토는 반드시 노해 곧바로 전라도 지방을 침범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카토는 만약 4 개 도를 억지 못한다면 죽더라도 돌아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清正若不得四箇道 雖死不還云)

카토는 도요토미의 본뜻을 왜곡시킨 고니시에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했으며 카토와 도요토미는 4 도분할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반면 고니시는 도요토미의 심유경과 함께 항복문서를 변조시키고 '책봉하면 물러설 수 있다'는 밀약을 했음을 카토는 이미 알고 있었다. 유성룡의 {懲愆錄} 卷二 丙申(1596年) 1月 이후에 다음과 같이 나온다.

관백의 요구가 대체로 너무 커서 封貢뿐만 아니라 중국 조정(中朝)에서는 다만 책봉만 허락했을 뿐 조공도 허락하지 않았으며 심유경은 고니시와 서로 친숙하기에 일을 임시 변통으로 꾸며내어 구차스럽게 성사시키고자 해서 실제로는 명나라 조정이든지 우리 나라(조선, 인용자 첨가)에 보고하지 않았으므로 일이 마침내 합의되지 못하고 말았다(惟敬與平行長相熟 欲臨事彌縫苟且成事 而不以實情 聞諸 天朝與我國 事竟不諧). 우리 나라에서는 즉시 사신을 보내서 [명 황제에게; 인용자 첨가] 그 사실을 빨리 아뢰었더니 석성과 심유경 모두 죄를 얻게 되었고 명나라 군사가 다시 나오게 된 것이었다.

위 구절에서 심유경이 명나라와 조선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음이 적시되고 있다.

그런데 1595년 1월 30일 冊封使가 北京을 출발하여 4월 8일 남별궁에서 선조의 접견을 받는데, 이 자리에서 심유경은 조선 四道の 割地란 풍설에 불과(貴國訛言盛行 至曰行長等必割得四箇道云云 此實虛傳 千萬勿疑 若待得四箇道則屯據 王城有何不可 而必退離 王城以據于海邊邑乎)하다고 말하여 이를 강하게 부인했다. 이러한 부인은 심유경의 할지(割地) 밀약이 명 조정의 방침과는 배치되므로 후퇴한 것이다. 이때부터 심유경의 밀약설은 그의 강한 부인 덕분에 조선 조정 초미의 관심사에서 다소 희석되며 일본의 割地 기도는 무산되는 수순으로 가고 있었다. 조선 조정의 인식대로 명황제는 조선을 속국으로 간주했다. 그런 명황제가 '속국 일부를 할양한다'는 강화 교섭 사절의 실무적이며 실리적인 저차원의 밀약사항을 추인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한편 부산에 도착한 책봉사 正使 李宗城은 도망치게 되어 명 조정은 副使 楊方亨을 正使로 심유경을 副使로 1596년 5월 4일 다시 임명하였다. 정사는 6월 15일

부산을 출발하였으며 부사는 정사보다 먼저인 6월 12일 오오사카에 도착하였다. 이어서 조선통신사는 8월 8일 정사 황신(정삼품), 부사 박홍장 외에 309명의 일행으로 부산을 출발했다. 그런데 통신사는 왕자를 동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요토미의 접견을 거부당했으며, 9월 2일 책봉사는 오오사카성(大坂城; 메이지시대 이후에는 '大阪城'으로 표기)에서 도요토미를 만났다. 도요토미는 향응을 베푸는 등 성대히 환영했지만 명나라 신종의 誥命과 勅諭의 내용이 도요토미의 일본왕 책봉에 그침으로써 그 동안의 강화 교섭은 결렬되고 도요토미는 대대적인 재파병을 결심하여 정유재란(1597)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도요토미는 심유경의 밀약도 있고 해서 조선 일부의 할양을 기대했으며 특히 조선의 두 왕자가 사죄하러 오지 않았다는데 크게 실망했던 것이다. 무엇을 위한 출병이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일본에서도 제기되어 도요토미의 위신이 손상되었으므로 재출병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유재란이 일어날 때 심유경은 講和의 주역으로 전쟁의 재발을 막지 못했다는 책임을 져야 했다. 도요토미의 조건을 명나라가 수락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루어진 일본의 재침은 조선 4도의 할양을 실력으로 강행하기 위한 측면도 있었으나 보다 본질적으로는 일본 전국시대에 행해졌던 인질정책을 조선에 적용해 조선을 지배하려 했던 측면이 강했다. 결국 심유경은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죄명으로 일본이 조선으로의 渡海를 완료한 1597년 7월 체포구금되어 참형되었다. 이런 여러 사실들에 비추어 봤을 때 심유경의 제안은 명나라 장수들 간 권력투쟁의 과정이며 산물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 {宣祖實錄}, 卷 40, 癸巳(1593年) 7月 壬戌(10일)日條에 의하면 "1년에 세 차례씩 조공을 바친다는 것과 전라도와 은 2만 냥으로 준 뒤에야 왕자와 세 陪臣을 송환하겠다는 것"이 고니시의 요구조건이라는 추측도 있었다. 또한 경상도 밀양 이남을 할여하려 하기도 했다는 기록도 있는데, 마지막까지 割地에 집착하여 한반도 남단의 적은 땅이라도 교두보를 확보하려했던 일본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

결국 명나라는 일본의 조선침략을 방어하는데 일조하였으며 일본의 영토 확보 기도를 무산시켰으므로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계속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심유경을 비롯한 명나라의 사신들은 상부의 반대 때문에 조선을 일본에게 할양하지 못했지만, 일본의 영토 할양 야욕을 감지했던 조선의 극렬한 강화 반대도 割地를 무산시킨 하나의 요인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도요토미가 1598년 8월 18일 사망함으로써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이 割地 무산의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분할 논의가 일어나고 있었던 1593년 하반기에 명나라 魏學曾은 "조선이 이미 제대로 왜적을 막지 못하여 중국에 걱정을 끼쳤으니, 마땅히 그 나라를 분할하여 둘이나 셋으로 나눈 뒤 왜를 방어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스리게 함으로써 중국의 속국으로

삼자"(朝鮮既不能禦倭貽中國之憂當分割其國爲二三視其能禦倭者而付之錯置爲中國藩蔽事)고 황제에서 올리자 병부(兵部)에 내려 논의하게 되었는데, 명 병부

상서(尙書) 석성(石星)은 불가하다고 완강히 주장하였다. 중국의 분할안은 왜적을 방어하는 목적이었지 왜에게 나라를 내어주는 안은 비록 아니었지만 믿었던 중국 조정에서까지 분할문제를 제기하자 조선은 심히 위기의식을 느꼈다. 이 안을 명 송응창으로부터 일찍 접했던 조선의 接伴使 윤근수는 고민하다가 비밀리에 선조에게 알렸다. 11 월(윤달) 1 일에 선조는 유성룡을 불러 명나라 사신 앞에서 임금자리를 내어 놓겠다고까지 했으나 유성룡은 만류했다. 이 대목에서 중국은 역시 조선의 종주국으로 자처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속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했음도 알 수 있다.

16 세기 말 조선의 분할안은 당초 일본이 제안했으며 명의 강화 사신 심유경 등이 그 수용을 검토했으나 명 조정과 조선 조정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IV. 맺음말

1592 년부터 5 년간 계속된 명·일간의 강화회의는 1596 년 9 월 2 일 일본 오사카성 회담에서 결렬되었다. 회담이 결렬된 이유는 명나라와 일본간의 미묘한 입장차이에서 기인한다. 명에서는 도요토미를 일본의 왕으로 삼고 그 입공(入貢)을 허락한다는 봉공안(封貢案)으로써 국면을 해결지으려 했으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① 명의 황녀로써 일본의 후비(后妃)로 삼게 할 것, ② 조선의 8 도 중 4 도를 할양할 것, ③ 감합인(勘合印: 貿易證印)을 복구할 것, ④ 조선의 왕자 및 대신 1-2 명을 인질로 삼을 것 등을 요구하였다. 심유경은 이 요구를 명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알고 거짓으로 본국에 보고하여 명은 봉공안에 의해 1596 년 도요토미를 일본 국왕에 봉한다는 칙서와 금인(金印)을 보냈는데, 화의는 결렬되고 이듬해 왜군은 재차 침입하게 되었다.

16 세기에 처음 등장한 타국간의 분할안은 조선이 근대세계로 편입되어 제국주의 열강에 의해 침탈되었던 19 세기와 20 세기초에 더욱 진전된 형태로 논의되었다. 이러한 논의들의 한 축에는 일본이 있었다.

16 세기 일본의 명나라에 대한 割地 요구는 일본의 영토적 야심에서 나온 것이었으며, 조선과 명나라의 견제로 무산되고 말았다. 16 세기에 논의된 분할선은 한강과 대동강이었는데, 이 선의 선택을 둘러싼 논란은 19 세기 말-20 세기 초에도 거의 같은 형태로 반복되었으며 20 세기 중반에도 유사한 논의가 있었다.

도요토미의 조선침략은 그의 '대아시아제국' 건설계획에 따른 첫 번째 해외정벌이었다는 평가가 있다. 그는 중국, 한반도, 인도, 페르시아, 류큐, 대만, 필리핀과 남태평양의 섬들로 구성되는 대아시아제국을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대아시아제국의 수도는 北京으로 정하려 하였다는 것이다. 이 대아시아제국 건설의 첫단계로 한반도, 중국과 주변의 섬들을 정복하고 1594 년에 일본 천황을 북경에 거주하게 하며, 히데요시 자신은 南京에 머물면서 대아시아건설의 제 2 단계인 인도정벌에 착수하려고 하였다.

히데요시의 대아시아제국 건설계획은 1598년 그의 죽음으로 끝났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 기유조약(1609) 협상과정에서 일본은 한반도의 남부를 일본에 양도할 것을 중국에 요구했다고 한다.